

일본 한신 계란 그룹 이야기

임 덕 성
본회 사무국장

- 금년초에 일본 관서지방에 있는 한신(阪神)계란 그룹이 1,000억엔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고 도산했다.
- 지난 85년도에는 다케구마 그룹이 160억엔 87년도에는 다이도농장이 240억엔의 부채로 도산한바 있다.
- 일본은 지금 세계 최강의 경제국으로 자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3배이상이나 GNP가 높고 지상 천국을 구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비극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금년도에 쓰러진 한신계란 그룹이 그것이며 이 현실은 선진대열에 곧 끼어들고자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경고를 주는 것으로서 현실외면과 불합리는 곧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배경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유색란(갈색달걀)을 좋아하는 기호가 짙다. 경축일이나 생일날에는 꼭 세끼항(赤飮)이라하여 붉은 팥밥을 지어 먹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에서는 갈색란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에 착안한 한신계란 그룹은 동구권 헝가리로부터 적색란을 생산하는 원종계와 이태리로부터 윈드레스계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금은 축산종합(畜産綜合)리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큰 그룹을 형성하여 일본전국의 판도를 장악코자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은 양계생산의 대규모화가 진척되어 대군생산자가 직접 판매점(도·소매)에 직판하는 등 유통분야에 진출하는 경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판매점도 균일한 품질과 신선도를 요구하는 배경을 배제할 수 없다. 1987년도 채란양계 농가는 전년대비 6%가 감소한 109,000농가이며 채란양계수수는 4%가 늘어 135,200,000수이며, 1호당 평균 사육수수는 1,240수(전년 1,117수)이다. 한편 유통업자는 상권을 빼앗기는 위기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품목(多品目) 다각화경영(多角化經營)으로 식품전체를 그리고 가공품도 다루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은 생산자가 자기내 유통분야를 침식하므로 우리도 생산분야에 뛰어들어 직판장을 필요로하는 생산, 유통체제를 구축코자하는 도전으로서 한신계란 그룹은 이것을 전략기반으로 삼은 것이다.

2. 운영

1. 한신계란 그룹은 원종계를 도입하여 종계를 축산종합리스(시설자금 금융업체)를 경유하여 각 부화장에 판매한다.

2. 생산된 병아리는 다시 축산종합리스가 매수한다(리스는 어음 발행).

3. 매수된 병아리는 위탁사육업자(부화장 또는 육추업자)에게 위탁사육 시킨다(통상 위탁사육할때는 위탁자가 병아리값, 사료비 등을 마련하여 육추업자에게는 위탁료만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어떤 부화장이 육추했을 때는 그 병아리는 다시 부화업자가 매수(윗돈을 없어서-약 40엔)하여 자기부담으로 사료를 급여하여 120일령 정도의 중병아리를 만들어 위탁료를 합산하여 축산종합리스로부터 어음(두번째)을 받는 대금결제 방식을 취했다.

4. 경영난에 허덕이는 어떤 양계장은 어음을 축산종합리스에 제공하여 농장의 재건(再建)을 기했으나 축산종합리스는 이 어음을 다른 리스에 전매했다.

즉 양계장의 소유권은 어음받은 리스가 차지했지만 축산종합리스가 대금결제를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결과

한신계란 그룹의 허황된 전략(戰略)은 얼핏 보기에는 새로운 계란의 생산과 유통에의 도전으로 보이나 이 전략은 위장전술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 일본업계의 견해이며 또한 계획적인 사기극이라고도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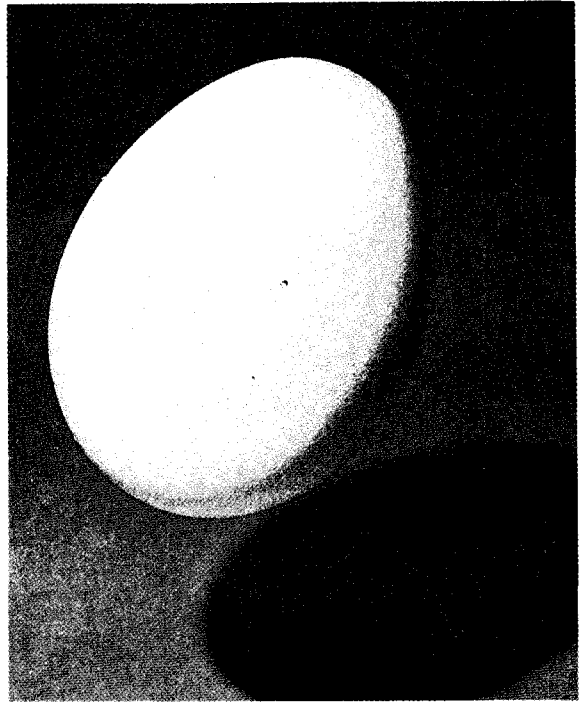
지난 3월현재 도산한 40여개 회사의 부채는 600억엔을 상회하여 어음(미결제)까지 합치면 1,200억엔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역적 도산의 범위는 북해도(北海道)로부터 구주(九州)에 이르는 전국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지금 일본은 그 회오리속에 휘말리고 있다.

이 그룹 도산에 대해서는 동정론(同情論)은 전혀 없으며 무단증수(無斷增首)의 비난이 높고,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피해자와 피해액이 늘어날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으며 채란업계 나아가서는 양계업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초래하게 되었다.

4. 문제점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기하여 양계산업이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보며 육계에 있어서는 인티그레이션, 채란은 GP센타운영 등으로 생산, 유통, 판매로 이어지는 원활한 흐름으로 상호 공제제도에 의한 생활안정권을 형성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대외무역 흑자에 의한 국부(國富)는 상대적으로 수입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되어 1987년도의 수입실적만 보더라도 조란수입량(동결란, 난황, 난백, 기타)은 3만여톤 브로일러의 경우는 태국, 미국, 브라질, 중공으로부터 19만5천여톤이나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전에는 태국으로부터의 일본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수입억제 내지는 거부반응을 받아 진사사절단(陣謝使節團)이 급파되어 수입관세를 인하시키는 등 진통을 겪은바 있다. 또한 지금 일본의 난가는 사상초유의 저가를 형성하여 1kg당 115엔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즈음 한신계란그룹의 도산은 일본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가 또한 금융을 다루는 사람들(리스)이 생산에 개입했다는 것은 마치 강물이 역류(逆流)하는 것과 같아 근본적인 모순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그룹에 관계된 사람들, 지원해준 유통기관업체 그리고 메이커에 대한 강렬한 비판과 아울러 자숙자성(自肅自省)을 촉구하고 신용회복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채란산업은 과거 2~3년동안 경기가 괜찮아 발생이익의 분배를 주로 새로운 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 결과는 소비를 능가한 생산과잉으로 지금 난가는 장기간 경영비에 밀도는 저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는 순수한 생산 농민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조속히 시설의 근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하고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여 가격안정을 기하고 닥쳐올 수입개방의 물결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한신계란 그룹의 도산은 우리의 순수한 1차산업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흉칙하고 잡스러운 인간들이 끼어들어 업계를 망쳐놓았다는 교훈(敎訓)을 얻게 하였으며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가공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254**